

2026 제9호

저작권 동향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의 Suno 저작권 침해 판결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ANI v. OpenAI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습 및 출력물에 관한 각국의 저작권 판단을 살펴봅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지역차단조치·VPN 우회 관련 판결을 비롯해 미국·중국·인도 법원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판결, 유럽저작권학회의 '적법한 접근' 의견서, 중국의 저작권 사법해석 개정, 일본의 퍼블리시티권 해석 지침, BRICS 보팔 선언 등을 소개합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언론매체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 사용에 대해, 소답 단계에서의 공정이용 및 사소한 이용 인정을 파기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별도 영상의 임베드는 유튜브 이용약관상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 승소 판단을 유지하였다.

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

유럽저작권학회(ECS)는 2026년 7월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의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TDM 예외의 적용요건인 이 개념을 권리자의 사전 허락과 동일시하면 예외 규정의 실효성이 무너진다고 보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나 권리유보 무시가 없는 한 웹상 공개 콘텐츠 접근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이라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

유럽사법재판소는 2026년 7월 9일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에서, 저작권 소멸국에서 공개된 저작물에 유효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VPN 우회 가능성만으로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조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저작물 공개자에게 귀속되며, VPN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8월 19일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을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은 '공표'의 판단기준을 객관적 공개 사실로 명확히 하고, 공공장소 미술저작물의 합리적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범정허락의 디지털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해, 중국 저작권법상 해외 음반에는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이 WPPT 관련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음집협회의 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브릭스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권 보호

2026년 8월 8일 인도 보팔에서 열린 제11차 BRICS 문화장관회의는 '보팔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에는 AI 시스템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과, 저작자·예술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담겼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저장이 인도 저작권법상 공정취급에 해당할 수 있고 ChatGPT 출력물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N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도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저작물 전송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인도 캘커타 고등법원은 2026년 8월 4일 호텔이 객실 내 TV·케이블을 통해 투숙객에게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중에 대한 전달"에 해당하는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저작권자 단체 IPRS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1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호텔이 케이블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무와는 별개이므로, 호텔은 IPRS로부터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슈리포트

독일 뮌헨지방법원, 생성형 AI 음악모델 Suno의 저작권 침해 판결

뮌헨 제1지방법원은 AI 음악생성기 Suno가 학습곡을 모델 내부에 기억(Memorization)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작권 복제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TDM 예외나 미국 공정이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과 미국 양국에서의 침해를 근거로 GEMA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

일본 생성형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해석 지침

생성형 AI로 배우·가수·성우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 모사하는 사례가 늘면서도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자, 일본 법무성은 검토회를 설치해 현행법에 기초한 해석·적용기준을 「생성형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관한 해석 지침」으로 정리하였다. 이 지침은 새로운 권리 신설 대신 기존 퍼블리시티권·초상권·부정경쟁방지법을 얼굴과 목소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무단 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사례별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였다.